

##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눈 4·3의 상처’



3월 28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찾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4·3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 총학생회가 마련한 4·3 유적지 순례… 재학생 600여명 참가 곤을동·너븐송이·평화공원 돌며 ‘제주4·3’ 관심과 이해 높여

제주 4·3 66주년을 앞두고 왕벚의 향연이 한창인 3월 28일 제46대 진짜 총학생회(회장 곽광표 경영학과 4) 주최로 4·3 유적지 순례 행사를 가졌다.

4·3 유적지 및 4·3 평화공원 순례는 학생 자치기구 임원들과 재학생 6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한 가운데 4·3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는 4·3 유적지인 △곤을동 △너븐송이 △낙선동과 4·3 평화공원 순으로 진행됐다.

곤을동은 제주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어 터만 남아 있는 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어닥친 토벌대에 의해 가족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곤을동은 집과 집의 경계였던 돌담과 일부 집터의 흔적이 남아있다.

너븐송이에는 너븐송이 4·3기념관, 4·3

희생자 복촌리 원훈위령비, 애기무덤, 옴팡밭, 순이삼촌 문학비가 있다. 너븐송이는 1949년 1월 17일 복촌 인근 마을인 함덕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복촌리를 지나다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대량학살한 곳이다. 일흔 위령비에서 학생들은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으로 짚어보기도 하며 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순이삼촌 문학비에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들이 적혀 있다. 시체가 널브러진 것처럼 비석들을 표현했고 한 곳에는 ‘순이삼촌비’가 세워져 있다. 학살 당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또한 처음 4·3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는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 복촌리 학살 사건의 상징적인 무대가 됐다.

김현주(인문홍보학과 3)씨는 “애기무덤의 시신들이 당시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복촌리 마을 주민의 학살터였던 ‘당팻’에서는 탄피가 아직까지 나온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4·3 평화공원으로 향했다. 4·3 평화공원은 4·3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공간과 4·3의 진실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2008년에 개관했다. 위령제단에서 모인 학생들은 일제히 묵념을 했다. 이후 4·3 평화 기념관을 관람한 후 유적지 순례를 마쳤다.

이유리(경영정보학과 1)씨는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도 해설사께서 4·3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다”면서 “아픈 우리의 역사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4·3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하나(독일학과 3)씨는 “이번 4·3 유적지 순례를 통해서 4·3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면서 “4·3 유적지를 순례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 ‘찾아가는 위킹홀리데이’ 설명 4일 로스쿨 강당서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와 외교부 위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공동주최로 ‘찾아가는 위킹홀리데이 설명회’가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위킹홀리데이 비자 취지, 위킹홀리데이 참가 방법, 유경험자 발

표, 안전정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열린다. 참가 학생은 공결처리 된다.

외교부 위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위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돕기 위해 외교부에서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상담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관계자는 “위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본인의 계획과 목표에 맞게 최대 1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체험과 문화등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영리업체의 상업적인 정보에 피해를 입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위킹홀리데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 맞선 ‘선제적 대응’ 필요

유사학과·교과과정 통합·개편 설명

대학 구성원, 명확한 평가기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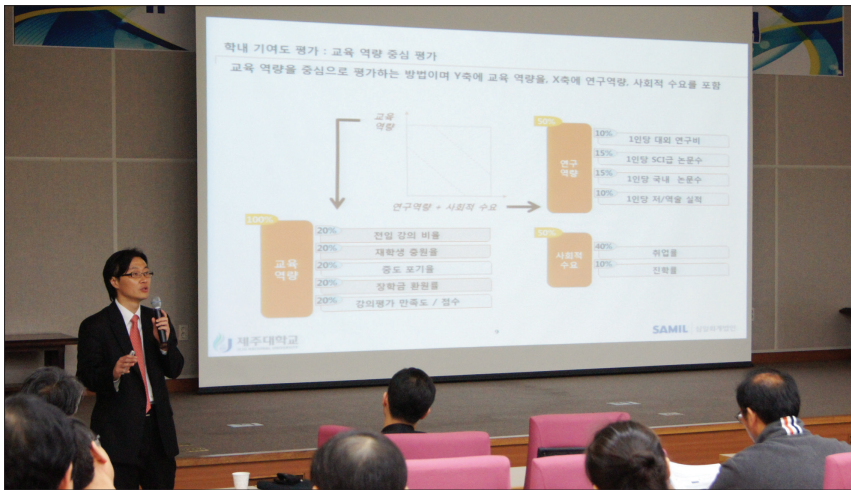
대학본부는 4월 1일 오후 3시 법학전문원 대학원 대강당에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입학정원 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방안 설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행사는 △허향진 총장 대학 구조개혁 관련 발표 △상임회계법인 오명길 이사 컨설팅 △김형준 기획부처장 학과 자율적 구조조정 인센티브 지원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허향진 총장은 “정부는 구조개혁 법안을 통해 전국 대학을 5단계로 분류, 최상위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며 “우리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명길 이사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 유사 중복 학과 및 유사 교과과정 통합 방안과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른 개편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산업 트렌드 및 특성화 사업에 맞는 학과 발전 방안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간담회에서 오명길 이사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구조개혁 방안 도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길훈(회계학과)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각 학과 평가 기준에 넣는다면 단과대학과 학과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손해를 보는 학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이외에도 학과의 특수성 인정에 따른 평가기준 변경, 학과 통합의 문제, 자료 신빙성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한편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적 학과 구조조정 추진안 및 인센티브 방안 수립 △임원학정원 감축안 등 자율적 학과 구조조정 추진 계획 시행 △경쟁력 분석을 통한 구조조정 기준 마련 △학문단위 경쟁력 진단을 통한 구조조정안 초안 마련 △학과 구조조정 계획 확정 △구조조정 방안 공지 및 의견 수렴 △대학 구조조정 방안 확정 및 시행 순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강수빈 기자

### ‘REAL PLAN’ 열려

학생회관 1층 로비서 3일까지

‘진짜’ 총학생회(회장 곽광표)와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가 함께하는 취업상담(REAL PLAN)이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상담신청은 오는 3일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학생회관 내 1층 로비 부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상담에서는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성적, 나이 등을 고려해 현재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진로 지도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을 받을 수 있다. 학생회관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단대별 컨설팅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다. REAL PLAN은 매해 4분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 제주대 박물관 ‘왕벚꽃 문화행사’ 개최

4·3진상규명운동 사진전도 함께 열려

3일 영화 ‘지슬’ 두 차례 상영

박물관(관장 허남춘)이 오는 5일까지 제주대의 명물이 된 ‘왕벚꽃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행사기간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는 ‘2013년 제주대 벚길 나들이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23점이 전시된다.

또한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실 ‘내왓당 무신도 속 부채만들기’를 무료 운영한다.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박물관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김기삼 사진작가의 ‘4·3진상규명 운동’ 40여점

의 사진을 전시한다. 1980년대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옴팡밭, 벚꽃 대학교 등에서 벌인 학생 운동 모습 등 과거 4·3 진상규명노력을 위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4월 3일에는 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영화 ‘지슬’을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상영한다.

강은실 학예연구사는 “제주대 벚꽃길은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명소로 거듭난 만큼 박물관에 들려 제주문화도 체험하길 바란다”며 “4월 5일 특별 개관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3주기에 행사를 같이 해 큰 의미가 있고 제주 4·3이 어두운 과거가 아닌 앞으로 밝은 빛의 역사로 나가는 길에 함께 해 줍니다”며 “내년에는 더욱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 관계로 4월 3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JPDC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목적

제주지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

● 교육기간 : 1년(연 30주, 주당 2시간)

●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20:30

● 강의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제1기 입학안내 ]

● 모집인원

60명 내외

● 지원자격

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의 장 및 주요 간부 나. 기업체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다. 자영 사업체의 대표자 라. 학교 경영자와 교원, 퇴직교원 마. 예술인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입학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3. 17.(월) ~ 2014. 4. 8.(화) 나. 접수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인문대학 1호관 2층) 인터넷접수(humanities@jejunu.ac.kr)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http://humanities@jejunu.ac.kr/다운로드)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사진(3×4) 2매(후후제출 가능)

● 합격자발표

가. 일시 : 2014. 4. 8.(화) 17:00 이전 나.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수강료 납부

가. 납부기간 : 2014. 3. 27.(목) ~ 4. 8.(화) 지정은행 영업시간 내 나. 연간 납부금액 : 금 1,980,000원 (입학금 180,000원, 등록금 1,200,000원, 자치회비 6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보조금 3천만원 지원 다. 1학기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 입학금 및 등록금 : 금 780,000원(입학금 180,000원, 등록금 600,000원) (농협 301-0145-0472-1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최고지도자과정) - 자치회비 : 금 300,000원(농협 302-0447-0141-11 박순옥) ※ 지정기간 내에 지정은행에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시 사진 2매 제출 - 1매는 원서 부착용, 1매는 원우회 수첩 제작용 - 사진크기 : 3×4cm, 사진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기재 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문의처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 (Tel.754-2702~2703, 2736 Fax.756-2722)



사설

4·3운동의 성과를 당당히 계승하자

제주4·3이 제66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다. 2000년의 4·3특별법 제정·공포, 2003년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6년의 노무현 대통령 위령제 참가 등에 이은 4·3운동 장정(長征)의 성과요 패자가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더욱이 올해는 한라산 금족령 해제로 제주4·3이 공식 종결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에 국가추념일 지정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선다.

돌이켜보건대, 4·3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걸어온 길은 대단한 것이었다. 1960년 제주대생 7명의 4·3진상규명동지회 활동은 4·3운동사의 첫발이라는 족적을 남긴 것이었고, 1987년 총학생회의 대자보 투쟁 이후 계속된 제주대생의 4·3진상규명운동은 사회적·전국적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내었다. 말하자면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진상규명운동이 그동안의 4·3운동사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김기삼 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운동’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학생들의 4·3운동 관련 사진 40여 점이 선보이고 있다. 1989년 학생회관과 읍방발에서 펼쳐진 추모제 장면과 지금처럼 벚꽃이 흐드러진 정문 밖 진입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은 4·3운동에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당당하게 계승해야 한다. ‘그뎨 그랬지’라며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지성의 전당담게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제8대 총장공모 과정에서 공론화된 4·3연구기관 설립 약속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현재 탐라문화연구소에 ‘제주4·3연구센터’를 두는 규정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루빨리 확정하고 인적·물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4·3 관련 강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할 것이다(현재는 사이버수업만 이뤄지고 있음).

학생회 차원에서의 계승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4·3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등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4·3진상규명의 주역이라는 자랑스러움을 면면히 계승할 수 있도록 ‘4·3청년축전’ 같은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과거처럼 흠날리는 벚꽃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화염병을 던지자는 게 아니다. ‘벚꽃엔딩’을 부르면서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청년으로서의 역사의식도 다지고 낭만을 즐기자는 것이다. 이제 제주4·3은 ‘여들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거듭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눈 먼 거북이와 다리 부러진 자라(盲龜破鼈)

불가(佛家)에서는 종종 화두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걷는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도반은 친구와 같은 이를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좋은 도반과 스승을 만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맹구파별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 고사의 내용은 옛날 바다 속에 있는 옥초산이 무너지자 산 밑에 살던 거북이는 눈을 잃어 앞을 볼 수 없었고, 자라는 다리가 떨어져 해엄을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북이와 자라는 둘이 서로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보충하기로 하고 다리 없는 자라가 눈이 없는 거북이 등에 얹혀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나누면서 큰 불편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라가 맛있는 과일을 따서 자기만 먹고 거북이에게는 주지 않아서 괴로운 거북이는 눈이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둘은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다.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 불편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며칠을 굶고 배가 곪은 둘은 서로 도우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던 때를 그리워하다 다시 합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둘은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보충하며 헤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포용,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같이 있을 때 서로의 중요함이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음은 볼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한 것이라고 한다.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도,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利己)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까?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존재이다.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삶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겪은 일들을 성찰하여 의식으로 켜켜이 쌓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 치열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숙성된 지혜라야 원숙한 삶의 지혜가 되는 법이다.

얼굴을 비추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모두 아는데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 자기를 비평하는 데 익숙한 사람만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시각으로 자신의 인격을 엿볼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현실을 딛고 서서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는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움과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 하였고, 다가를 미래에 대해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지런히 답을 마련할 때이다.

‘강의명’ 만 같으면 똑같은 수업? 수업권리 침해

과목코드·전공·이수학년 달라도 재수강 처리돼

프로그램 상 동일 교과목 처리… 내년 개편 하겠다

다른 내용의 강의가 단지 강의명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수업으로 처리돼 학생들의 수강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언론홍보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사회학과 한 학생은 지난 1학기 수강 신청기간에 언론홍보학과와 ‘정보사회론’ 전공 강의를 수강하려했지만 재수강 처리된다는 말에 수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회학과에서 수강했던 ‘정보사회론’ 강의와 강의명이 같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두 강의는 강의명만 같을 뿐 이수 학년과 전공, 교재, 강의 내용과 과목 코드까지 모두 다른 강의다.

이 학생은 각 강의의 교수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지만 두 강의는 확연히 다른 강의였다.

이 학생은 사회학과에 문의를 하자 “같은 수업일 수 없다”며 “학사과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학사과에서는 “강의명이 같으니 같은 수업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사과에서는 또한 “강의명을 바꾸면 앞으로 이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학생은 “이름 한글자만 바뀌도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단지 강의명이 같기 때문에 수강하지 못했다”며 “강의명을 바꾼 뒤 대체과목으로 지정하면 재수강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학생은 또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을 종종 봤다”며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일수록 교과과정 편성시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2절 제16조에는 ‘학문 간의 연계를 유지하며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과 달리 학생들은 강의명 중복으로 인해 수강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과과정은 담당 교수가 강의명을 정해서 제출하면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의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교수측에서 강의명을 변경해야 한다. 학사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여 교과과정 편성 시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미란 교무과 실무관은 “프로그램 상 강의명이 같으면 동일 교과목으로 처리돼 현재로서는 여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문제를 인지하게 돼 2015년 교과과정 부분 개편 때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첨단디지털 도서관 들어선다’ 제3도서관 기공식 열려

미디어제작실·스터디실·세미나실 등 복합문화공간 갖춰

허항진 총장 “도민편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될 것”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제3도서관 착공을 위해 3월 27일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허항진 총장, 김태환 총동창회장, 안민찬 기성회장, 중앙도서관 운영위원, 전·현직 도서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길홍수 중앙도서관장의 경과보고 김집지학 시설과장의 공사개요보고 허항진 총장 기념사 김집태환 총동창회장의 축사 스테이트 절단식과 시삽 순으로 이뤄졌다.

중앙도서관과 연결되는 제3도서관은 첨단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디지털’ 도서관으로 지어진다. 도서관 신축 사업에는 총 140억1700만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00㎡ 규모로 지어지는 도서관은 201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건물은 기존의 중앙도서관과 층의 높이를 맞춰 두 건물에 통일성을 주도록 설계됐다. 도서관 내부에는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자료실, 미디어제작실, 정보검색실, 노트북실, 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허항진 총장은 “디지털도서관이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3월 27일 제3도서관 신축 기공식 행사에서 허항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단순한 대학도서관이 아닌 도민들의 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그린캠퍼스패트를 활동자 모집

교내 에너지 절약 활동

3일까지 모집… 4개월 활동

그린캠퍼스사업단(단장 감상규 환경공학과 교수)은 오는 4월 3일까지 그린캠퍼스패트를 활동자를 모집한다.

그린캠퍼스사업단은 그린캠퍼스패트를 활동자에게 조기와 활동격려금(10만원/월)과 그린캠퍼스 마일리지(300점/월)을 지원한다.

그린캠퍼스 패트를 활동자는 우리 학교를 그린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활동기간은 총 4개월로 1학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며 2학기에는 9월에 활동을 한다. 선발인원은 총 9명으로 합격자 발표는 4월 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 한 뒤 이메일(seonyoung@jeju.ac.kr) 또는 공과대학 3호관 그린캠퍼스사업단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문의= ☎754-8276 유주연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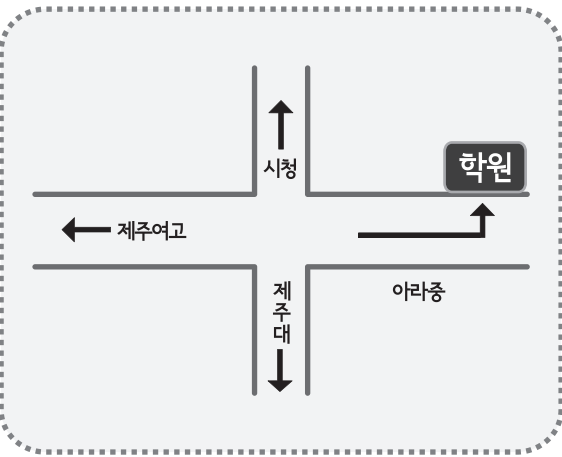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강정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대상 :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모집기간 : 4월 3일 (목)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ac.kr) 접속 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부파일)을 받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취업전략본부 3층)에 제출
- 기타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동기) 1부 칼럼(자유주제) 1부
-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제주대신문 학생기자 출신 도내외 주요 언론사 취업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현재 일본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라오스, 미국, 몽골, 대만, 베트남 등 현지 취재)
- 면접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 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신문

www.jnuri.net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동!

미래를 여는 제주의 새 패러다임! <제이누리>가 있습니다.

제주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 교내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 위협

좁은 도로에선 차량 피해 중앙선 넘는 아슬아슬 운행도

주차금지 구역 불법주차로 교내 순환버스 운행 불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교내 불법주차의 모습은 다양하다.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는 물론 공간만 있다면 길모퉁이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다. 주차금지 표시판을 치우고 주차를 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는 차량도 심심찮게 보인다.

불법주차는 학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주차 된 차량을 피해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보행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불법주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김현아(행정학과 2) 씨는 “길이 깎이는 모퉁이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 때문에 다른 차가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몰랐다”며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고가 날 뻔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는 학내 교통문제도

발생시킨다. 교내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운행하는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한다.

노민우(경영정보학과 2) 씨는 “교양동 앞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교내순환버스가 제대로 지나갈 수 없었다”며 “순환버스 뒤로 이어진 차량들도 줄줄이 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김재민(메카트로닉스 2)씨는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 때문에 규정을 지키며 이용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차량이 빠져나올 위치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 등 양체 같은 차량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주차의 문제가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 때문이 아니다.

표성철 총무과 실무관은 “현재 주차장 규모는 약 2530여대가 수용가능



본문 앞 교직원 주차장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많은 차량이 횡단보도 위와 길모퉁이에 주차를 하고 있다.

한데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대략 교직원들이 620대, 학생이 350대 뿐”이라며 “민원인들의 차량을 포함 시키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차량이 넘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 출입증 미부착 차량 단속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문 입구에 차량 출입증 미부착 차량에 대

한 단속을 공지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딱지를 발급하는 등 지난달보다 단속이 강화됐다.

표 실무관은 “단속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학내의 원활한 차량순환과 교통을 위한 것인 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 미취업 졸업생 대상 수도권 취업 돕는다

2월부터 청년취업센터 운영

매주 목요일 CEO간담회 열어

수도권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지난 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윤)는 올해 2월부터 서울 탐라영재관에 ‘청년취업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지난해 우리대학 출신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은 12.6%로 낮은 이유에서다. 취업전략본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취업정보 제공하고 적극적으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청년취업센터 내 컨설턴트를 뒀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등 컨설팅과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취업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수도권 기업체 CEO, 제주대 출신 동문 CEO 및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취업전략본부는 매주



3월 21일 탐라영재관 청년취업센터에서 임재윤 취업전략본부장이 취업지원 설명을 하고 있다.

목요일마다 서울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취업교육과 특강, 기업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편 수도권취업지원 간담회는 3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서울 이랜드리조트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21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미취업 졸업생 12명과 우리 대학 동문인 백경일 제이에스일렉트릭 대표와 이영미 에코브레인 대표, 취업전략본부장 및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이날 배재영 (주)엘리트코리아 과

장이 ‘채용 트렌드 및 취업 전략’에 대해 취업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한 CEO의 특강이 이어졌다.

27일 열린 2차 간담회는 미취업 졸업생 8명 참석해 취업교육으로 ‘인적성 검사의 이해’를 수강하고 (주)텔리센트로를 방문했다.

김문규 취업팀장은 “학생들에게 기업현황과 업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며 “제주대 출신 동문CEO와 간담회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들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1학년 대상 서포터즈 모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송현선)가 1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4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은 3월 28일부터 오는 4월 오후 5시까지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하며 서포터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포터즈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임명장과 제주대학교 총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된다. 이들에게 서포터즈 활동 장학금도 지급된다. 참가 희망자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다운받은 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된다.

윤성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실무관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1학년때부터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이 기회를 통해 1학년 때부터 여러프로그램을 체험해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서포터즈 신청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조현천(독일어과) 교수

2일 ‘더불어 살기…’ 특강

조현천(독일학과) 교수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아라무스홀에서 열리는 ‘문화광장’에서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조 교수는 부산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HK교수(정년트랙)를 거쳐 현재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전의 반역1>(공저), <고전의 반역6>(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호흡>, <위대한 스캔들>, <소말>(공역), <토마스 베른하르트>(공저)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파트릭 쥘리앙의 소설 <비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이 없는 유토피아의 허구성을 통해 삶에 있어서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 중앙도서관 대출 1위 ‘미생’

2위는 조정래의 ‘정글만리’

상위권 절반 이상 소설류

4월1일 기준 연간대출 순위

2013년 4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대 학생들이 중앙도서관(관장 김홍수)에서 가장 많이 빌려 읽은 책은 만화가 윤태호의 ‘미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해 중앙도서관에서 빌려본 상위 10위권 책의 절반 이상이 소설이었다.

프로 바둑 기사만을 목표로 살아 가던 청년 장크레가 입단에 실패하고 ‘회사’라는 세계에 들어서며 시작되는 웹툰 원작 만화 ‘미생’은 1년간 285회 대출돼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65회 대출된 소설가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차지했다.

‘정글만리’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대를 위한 것인 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간 200일 만에 1권 100쇄를 돌파했다. 이는 한국소설 중에서는 5년만의 기록이다. 3위는 165회 대출된 최태성의 한눈에 사로잡는 한국사였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국사를 주제로 다루면서 이 책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4위는 83회 대출된 강세형 라디오 작가의 두번째 에세이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가 차지했다. 또 지난해 KBS 2TV의 책 소개 프로그램 <달빛 프린스>에 소개됐던 소설 ‘꾸뻬씨의 행복 여행’이 82회로 5위에 올랐다.

6위는 80회 대출된 스테디셀러인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차지했다. 또 7위는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79회 대출됐다.

8위는 77회 대출된 정유정의 장편소설 ‘7년의 밤’이었다. ‘7년의 밤’은 21만부가 판매되며 장르문학



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문단의 평가를 받았다. 9위는 76회 대출된 헤민스님의 베스트셀러인 ‘뎀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0위는 72회 대출된 ‘독서천재’가 된 흥대리가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

에서는 컴퓨터류와 전공서적을 제외했다.

이명희 중앙도서관 자료운영팀장은 “학생들이 많이 대출하는 도서들이 시중의 베스트셀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성을 쌓을 수 있는 고전 책 읽기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 출범식때 댄스 강요받는 교육대학 신입생

지난해에 이어 불만 터져

다른 출범식 축하 방법 찾아야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육대학 출범식 행사가 올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대학 출범식은 새로운 학생회와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출범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때 전공별 학회장을 응원하는 영상과 축하 공연으로 춤을 춘다. 하지만 신입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배들의 강요로 춤을 연습한다.

지난해 출범식 준비를 하던 중 한 학생이 강제적인 춤 공연 준비에 반발해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는 저학년에게 춤 공연 준비를 강요하는 선배들에게 불만을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춤 공연을 강요받고 연습이 부족하다며 질

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만 아니라 다른 과 학생들도 이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며 “누군가가 나서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마음에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학과 조교는 “시위 당시 교칙에 따라 학교 명에 실추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길 권유했다. 또 학생회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후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이 학생은 대자보를 붙이는 등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갔지만 그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내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해도 이러한 출범식 행사 문화에 학생들의 불만 또한 커져가고 있다. 한 신입생은 “왜 춤을춰야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춤을춰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당황스러웠다”며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되

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춤을 강요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입생은 “개인적으로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연습하다가 선배들에게 혼나고 춤 연습을 감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회장을 축하하기 위한 것은 알겠는데 학업으로도 바쁜 와중에 춤 연습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른 방식으로도 축하할 수 있는데 왜 꼭 춤을 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라캠퍼스에서는 경성대학이 이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다. 경성대에서는 신입생 장기자랑의 하나로 춤 공연이 기획되며 대다수가 참석하나 참여에 강제성은 없다. 강경태 기자

## 제주4·3 해결위해… 한미공동위 청원운동

미국 역사적으로 책임 있어

참배식·청원문 서명부 전달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소장 고창훈)는 3월 27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주 4·3 비극 치유 한미공동위원장 청원운동’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에게 제주 4.3사건을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명운동의 참배식과 청원문 서명부 전달을 겸했다.

한편 행사에는 고창훈 교수를 포함한 김두연 전 제주 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정문현 현 유족회장, 허상수 성공회대 겸임교수, 홍성수 전 유족회장, 박경훈 (사)제주민속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고창훈 교수는 “4·3사건은 미군정 시대에 일어난 일이므로 미국 또한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동위원단 구성을 통해 사회적 치유에 참여케 하는 것



고창훈 교수와 정문현 유족회장, 허상수 교수, 김두연 전 유족회장, 홍성수 전 유족회장, 박경훈 이사장이 서명식을 하기 전 위령제단에 참배를 하고 있다.

이 이 운동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청원서는 제주도민과 한미양국 정부 및 시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하에 제작됐다. 청원서에는 △4·3사건의 배경 △4·3사건의 주요 연혁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의 상처 △4·3에 관한 국가진상조사위원회의 영문 보고서 △한미 공동위원단설립의 목적과 나

가야 할 단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상수(성공회대 겸임교수)교수는 “이번 청원서 제출을 한 시기에 4·3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온다”며 “도민의 상처를 담은 4·3의 속제가 해결되는데 이번 서명운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현지희(생명공학부 1) 씨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

현지희(생명공학부 1)씨가 최근 대통령과학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씨는 이번 선정에서 수학·물리·화학·지구과학·정보 등 6개 분야 중 지구과학(천문) 분야에 선정됐다.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심층면접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씨는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과 250만원의 학업장려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 장학금은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장학생은 120명이 선정됐다. 강경태 기자

## 창업 사업 아이템 희망 대상자 모집

창업지원단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유망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희망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생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올해 1월1일 이후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면 가능하다. 김보라 기자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소요비용의 70%범위 내에서 최대7천만원까지의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한다.

관련내용 8면 선정 희망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창업지원단 홈페이지(changup.jejunu.ac.kr) 김보라 기자

>> 새로운 책

## 북한과 통일문제의 좋은 길잡이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변종현 지음 | 인문사 | 12만원

변종현(초등윤리교육전문) 교수가 최근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를 펴냈다. 변 교수는 북한체계론(complex systems theory)의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통찰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동안 강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북한이해와 연구의 방



향, 북한의 변화 가능성, 남북한 관계의 과거와 현재, 남북한 통합의 이론적 기초, 통일비용과 통일 필요성 논

거, 통일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10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간명한 논조로 다루고 있어서 학생은 물론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교수는 1997년부터 제주대 교육대학에 재직하면서 『비전 2020』(민음사, 1999)와 다수의 저서와 역서를 펴냈다. 그리고 체계이론(systems theory)을 기반으로 정치 및 사회현상의 변동 과정을 규명한 연구 결과들을 ‘Systems Research & Behavioral Science’ 등에 게재하였고, 정치사상,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강경태 기자



# 다음 본사 2012년 이전... 제주대와 ‘다음트랙’ 운영

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탐방 < 1 >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신입사원이 이재웅 전 대표와 조찬모임에 지각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는 2시간이 넘는 출근 시간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물리적 위치를 옮기는 것만으로 엄청난 효율이 창출될 것이라 확신했고 제주로 본사 이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계시판을 통해 사내 토론을 벌였고, ‘즐거운 실험’이란 이름으로 2004년부터 본사 제주 이전을 시작한 다음은 그 해 3월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협약을 맺고 ‘제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해 4월 인터넷지능화연구소 소속 16명이 유수암리에 첫발을 내딛은 후 2006년 완공된 다음 글로벌미디어센터(GMC)에 130여명의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제주생활을 시작했다.

## ◇다음 스페이스의 시작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4526억원을 들여 2005년 6월 착공해 2010년 3월 25일 준공한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2012년 4월 신사옥 ‘스페이스타운(Space.1)’에 둥지를 틀었다. 스페이스타운은 개방과 소통의 가치를 담았다. 스페이스타운은 면적 9184㎡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현재 직원 4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테라스마다 잔디를 심어 상공에서 봤을 땐 오름을 떠올리게 했고 실내에서 봤을 땐 화산 동굴을 형상화해 제주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스페이스타운 내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썼다. 수면실과 게임룸, 아이디어 룸을 마련해 일을 하다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외부에는 게이트볼장, 골프 퍼팅 연습장,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가 있어 점심과 저녁시간을 틈타 많은 직원이 운동을 즐긴다고 한다. 뒷밭도 조성해 주말에 자녀와 함께 농작물을 가꾸기도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짓고 있는 다음의 두 번째 건물인 ‘스페이스닷투(Space.2)’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 중으로 곧 완공이 다다랐다. 스페이스닷투는 면적 8592㎡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다. JDC 건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제주로 오는 직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스페이스닷투보다 좀 더 사무공간 위주로 설계됐는데 동선의 효율성과 직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또 내부에 직원들의 장·단기 출장시 사용가능한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별도의 직장보육시설로 스페이스닷키즈가 3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1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와 함께하는 다음트랙

다음은 우리대학 컴퓨터공학과,컴퓨터교육과와 함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다음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상상하는 길을 모색하던 중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2007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개발 실무에 대한 강의를 다음 개발자가 겸임교수로 참여해 직접 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트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 인정은 물론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은 또 올해까지 6년째 다음트랙에 참여하는 우수학생 10명을 선발해 매년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이들 중 졸업 후 다음에 채용되기도 한다. 다음트랙을 수강한 졸업생은 다음은 물론 여러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강의를 한 교수와 한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은 채용에 있어서 학벌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 학생을 특별하게 우대해 채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다음은 지역 인재 고용 및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으로 제주경제와 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을 즐겁게 변화시키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회성에 그



치지 않고 교육·문화·복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상생 추구

주요 지역공헌 사업으로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손꼽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네티즌이 직접 웹사이트에 올리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심사해 후원한다. 2008년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현재까지 164명과 28곳의 기관을 도왔다.

다음은 제주 본사 이전에 발맞춰 IT활용실기 교육인 ‘비영리단체를 위한 IT ProBono @Daum’과 2010년부터는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어린이날, 여름캠프, 겨울캠프, Daum人, 멘토링 데이 등의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또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를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상식과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들로 학생들에게 다가가지고자 하고 있다. 제주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 이용문화를 만들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함께 창의IT 워크샵 ‘언플러그드 데이’와 ‘스마트 에듀 데이’등을 개최하고 있다.

제주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후원하고



2012년에 완공된 스페이스닷원(위)은 사무공간,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 지하에 마련된 수면실 및 게임룸(아래)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있다. 2012년 공연·여행·강연을 결합한 ‘GET in Jeju’를 시작으로 영화 제작관계자 강연시리즈 ‘엔딩크레딧 가까이 보기’, 제주여성문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제주여성영화제’ 등을 후원하는 등 지역 문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닷원 입구에는 노트북을 손에 쥔 돌하르방이 보인다. 다음은 이를 보고 ‘제주를 다했지만, Daum을 다했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다음을 이전기업이라고 하지만 다음의 본사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기업’이 될 것이다.

인터뷰 한동헌 다음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실장

## “커뮤니케이션 능력 갖춰야 진짜 인재”

### ▶다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는.

“입사 10년차인데 처음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인터넷 기업의 공통점이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호칭도 ‘~님’을 붙여 사용한다. 이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의미이다.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은 여가와 일을 잘 조화시켜 가장 좋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엄밀하게 확정돼 있지 않고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인한다. 개인이 업무에 책임을 갖고 맡은 일을 일정을 세워 마감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에서는 일괄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팀장과 팀원의 합의해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도록 한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상부의 명령이 아닌 담당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협의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이전 후 직원들의 제주 생활은.

“직원들은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가족, 동호회 등 사람들과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다.

또 제주가 지닌 산, 바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를 보낸다. 윈드서핑과 오징어 낚시를 하자고 계시판에 글이 올라온다. 주말에는 삼삼오오 모여 올빼미를 낚는다. 기존자들은 제주에 정착해서 가정적으로 변했다.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퇴근을 하면 옷장이 가족과 보낼 수 있다. 출퇴근에 쪼든 서울과 달리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96% 이상의 직원이 생활에 만족하는 등 제주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 ▶제주 생활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주에는 자원자 중심으로 내려왔 다. 어떤 분은 제주에 내려오니 여유로



적응을 해버려 바쁜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한다. 그 분은 현재 다시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 ▶제주대 학생들에게 한 마디.

“다음은 제주대와 산학협력프로그램인 ‘다음 트랙’을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다음에 많은 제주대 학생들이 입사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대학생들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다음트랙’ 출신자들을 살펴보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 면접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살피는데 제주대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답변한다. 서 울지역 학생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알답게 말한다. 책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상처를 받아도 버텨내는 인내력이 중요하다. 인생은 굴곡이 많다. 항상 인생 곡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

강경태 기자



## 글로벌 인재는 열린사고와 유연함 갖춰야

### 제주관광산업과 JDC의 역할

김 한 욱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사람들은 왜 친절하지 못할까. 그 답은 제주의 역사적 배경에 있다. 제주는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라국이 일개의 군으로 편입되면서 변방의 설움과 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삼별초의 난, 출륙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남에게 친절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고려 시대에 몽고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100년 가까이 제주를 통치했다. 탐라로 부임한 관리들은 한양에 다시 상륙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제주 백성들을 수탈하곤 했다.

###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역사는 1910년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제주항이라 불리는 산지항 개발계획이 맨 처음이다. 일제에 의한 산지항 개발은 제주를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였다. 1930년대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주도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항만, 비행, 도로 등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공사가 시작됐다. 이어 제주도 개발계획이 최초로 문서화된 것은 1963년도다.

당시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고 제주를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자고 했다. 그때부터 4번에 걸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홍콩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에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그 이유였다. 본격적인 제주 개방의 역사가 채 50년이 안 된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된 이상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항공 접근성의 부족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회시스템, 환경보존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장거리 대형비행기가 착륙하기에 할쥬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공항



### “자기 영역만 최상이라는

자만심은 변화를 방해한다.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나권에 있어서 소음문제로 인해 야간이착륙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의 취약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종 대신 소형기종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로 가까운 동남아 지역만 보더라도 체인형 고급관광호텔이 즐비한데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제주에 몇몇의 특급호텔이 있지만, 숙박시설도 국제도시 수준에 맞춰서 시설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개발 이면에 환경보존도 중요하다.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다. 오염된 지하수를 바다로 흘려 내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다시 정화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 ◇열린 태도 가져야 생존 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17년 전 그랬던 청사진을 JDC 이사장이 되고 나

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어보자는 여론이 일었다. 지정학적인 이점과 호텔과 골프장 등 휴양시설이 많다는 점,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특별한 법령과 제도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된 것이 국제자유도시다. 현재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관광미항개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의 주요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가 제대로 성사된다면 제주관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취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 소득향상사업 지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

그러나 도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제주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여부는 달라진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폐쇄적인 사고를 버리고 열린 사고와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영역만 최상이라는 자만심은 변화를 방해한다. 변화가 두려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발전이 없다.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존과 시대변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융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을 면치 못한 다. 변화는 보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호 나나니의 ‘로마인 이야기’에 중국 진시황은 2000년 전에 외부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뚫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은 3대도 못가서 망했지만 로마는 1000년을 갔다. 개방과 폐쇄의 차이다.

남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럽의 다른 민족보다 머리로 나쁘고 체력도 약하며 기술도 떨어지는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간 것은 바로 ‘정신’이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좋은 정신을 접목해 노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정용복 팀장

## 열정보다 나은 스펙은 없다

### 인생의 힘, 챔피언처럼 싸우는 방법

김 남 훈 / 격투기 해설가

격투기 해설자가 되고 싶어서 2002년부터 모든 방송국에 서류를 냈지만 통과가 안됐다. 스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설자가 되기 위해선 올림픽 금메달을 땀겨야 챔피언 벨트가 있거나 현역 시절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7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동영상 올리다 보면 방송국에서 내 존재를 알게 될 거라 생각해서 ‘로우키의 비밀’이란 동영상만들었다. 이 동영상에 인기를 끌었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한 방송국에서 가을 개편이 있는데 해설자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했다. 결국 오디션을 봤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 ◇작은 첫 방을 노려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을 보여 주면 된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열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분야에만 집중을 한다. 머리와 스펙은 뜨거운 관심과 열정, 꿈을 이기지 못한다. 스펙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게 비정당한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 개개인이 곧 스펙이다. 격투기에서도 팔 길이가 길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팔이 길면 좋듯이 스펙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팔이 짧은 사람은 격투기를 하지 못하고, 스펙이 모자라면 처음부터 실패하거나 포기하는게 옳은 것인가. 아니다. 꿈은 원래 장애물과 원플러스원(1+1)이다. ‘첫 방’을 강조하고 싶다. 격투기에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시합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때려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몸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주먹을 날려야 하는지 알게 된다. 너무 큰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를 세워 그 ‘첫 방’을 날려봤으면 좋겠다. 그럼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



### “너무 큰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를 세워 ‘첫 방’을

날려봤으면 좋겠다.

그럼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냉철한 이성 는 필요하다.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 예밀리아넨코 표도르는 다른 헤비급 선수들 보다 키가 10cm 이상 작고, 몸무게도 30kg 이상 덜 나간다. 그런 그가 챔피언이 된 이유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팔 길이가 긴 선수와 맞붙을 때는 스탠딩 대신 그라운드로, 몸무게가 커다란 선수와 맞설 때는 거구에 걸리면 안 되니 철저하게 스탠딩 공격을 택했다. 우리가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데 그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도르는 철저한 이성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붙어도 연승했다.

### ◇인생은 자기만의 기술로 끝까지 싸우는 것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며 하반신 마비를 겪었던 경험도 있다. 로프 반동을 하다가 장 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으로 다리

를 만지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목의 신경이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제 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처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기어가는 연습을 했다.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 다음엔 벽을 잡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또 6개월이 걸렸다. 처음부터 일어서려고 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단계별로 작은 승리를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승리를 맛보는 게 중요하다. 인간이 가진 성취감의 탱크는 계속 커진다. 만약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려했다면 힘들었겠지만 화장실까지 기어가서 작은 승리를 맛보고, 다음엔 문까지 승리를 맛보고, 작은 승리를 반복하다보니 큰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술배우 이소룡의 성공 비결은 ‘아름에 공감하는 것’이다. 주변 스탠트맨과 스텝들을 유난히 배려하고 아끼기로 유명했던 이소룡은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성품과 같은 배우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위험한 상대역을 소화해줬다. 성품이 없었다면 과연 이소룡이 단 네 편의 영화로 이렇게 전설적인 존재가 됐을까. 이소룡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스타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필살기는 살아남기 위한 집약적 기술을 일컫는다. 지금은 달콤한 위로와 조언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 필살기를 단련하는 것은 언뜻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인생이란 ‘자기만의 링에서 자기만의 기술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스스로 문제를 내고 풀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자. 타인을 경멸하지 말고 스스로를 단련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작은 것들부터 이뤄나가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여러분의 미래가 곧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이다. 혼자가지 말고 옆에 있는 이들과 손을 붙잡고 간다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정용복 팀장



# 학습은 ‘완전체의 뇌’를 만들어가는 과정

학술기고 뇌의 양식: 학습



정 성 철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진화 과정에서 직립보행과 그로 인한 손의 자유로와짐은 현세의 인류 생활형태를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손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의 생각은 깊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며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것을 다시 생각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활동에서 손만이 그러한 역할을 할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체를 사용하는 능력, 팔을 사용하는 섬세한, 필요에 따라 신체를 적절히 움직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손의 사용은 그 중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인간 진화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의식’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정신 세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뇌’로부터, 뇌 혼자로부터, 우리의 기쁨, 즐거움, 웃음, 낭만과 슬픔, 고통, 탄식, 눈물이 나타난다. 뇌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듣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리고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구별한다’는 말은 기원전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내용이다. 뇌의 의식 세계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발전되어 왔다. 직립보행이 나무 위의 열매를 수집하는데 더 좋으며, 그로 인해 손의 사용이 가능하니 도구의 사용이 쉬웠을 것이다.

결국, 뇌의 학습과 생각, 즉 ‘의식의 형성’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수십만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뇌는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구조체를 갖게 된다. 100억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인간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우선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고 미리 제시하고자 한다. 유전적 원인이나 병적 손상을 제외하고 극히 정상적으로 건강한 뇌를 갖고 태어난 어린 아이를 생각해보자. 태어나자마자 감각이 살아나고, 빛과 소리에 반응하며, 울음을 터트린다. 이러한 능력을 보였다고 하여 뇌가 완전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다. 태어난 직후부터, 시각, 청각이 없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물에 대한 형태인지능력이 확실히 떨어지며,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는 태어난 후 보고 듣고 학습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체의 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뇌를 인지과학의 중심에 둬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정신과적 질환이 귀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균형이 깨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을 현대 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며, 간질발작과 같은 약마의 질환(성경에서 언급되는)이 신경세포들의 비정상적 집단발화와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해졌다.

뇌가 학습을 통해 완전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뇌의 작동원리만을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뇌가 생성되고 나며, 지속적인 감각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감각은 위에서 언급된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 통각, 미각, 후각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되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감각에 대



3월 15일 ‘세계 뇌주간’을 맞아 ‘뇌와 신경과학의 이해’를 주제로 생명자원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강연이 진행됐다.

그 중에서 기능적 뇌조영술 (functional MRI)은 인간의 생각, 행동 그리고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을 뇌의 혈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알아낸다.

뇌조영술을 이용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자면, 바로 ‘거울뉴런체계 (mirror neuron system, Rizzolatti외, 1996년)’ 일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행동을 통해

어 있다. 또한, 전전두엽 피질 (prefrontal cortex)은 상황판단과 더불어 행동표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을 유도해내는 흐름도 (flowchart)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역별 기능들을 유추해 볼때, 뇌가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효율적 유기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뇌의 학습 능력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복잡한 체스판을 전문가 집단과 초보자 집단에 보여주었을때 체스판의 말들 위치를 잘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이다. 언뜻 보면 당연할 것 같으나, 실험을 통해 그 현상을 연구한 결과, 전문가 집단은 복잡한 체스판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목표 의식’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체스판 기억이 가능하며, 반대로 목표 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문가 집단도 초보자와 같은 수준의 기억력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의 의식수준 형성 단계에서 목표 의식 형성이 전체 학습능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이 여타동물들과 다른 점은 분명히 ‘생각과 표현’ 그리고 지식 형성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수준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 진화과정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구조형성, 인간관계의 유지, 체계적 교육과정 등이 일조했다는 뜻이다. 그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렇지 않은간에 우리의 뇌는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학습을 먹으며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부딪혀 경험할 수 있는 젊은 나이가말로 가장 풍성하게 뇌를 살찌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 인류 진화 원동력은 직립보행에 앞선 ‘의식의 형성’ 효율적으로 뇌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은 ‘목적’ 젊은 나이가말로 풍성히 뇌를 살찌울 수 있는 시기

# 지역언론,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해야

도의회·도기자협회 공동 주최 ‘지방행정 및 정치발전 위한 언론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도 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도의원)와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회장 고대모 한라일보 기자)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6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행정 및 정치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언론이 지방행정과 정치발전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진회중(언론홍보학과) 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영철(언론홍보학과)·구교태(계명대 언론영상학과)교수의 주제발표와 강창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승중(제주일보) 편집국장, 송원일(MBC) 보도국장, 최낙진(언론홍보학과) 교수,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발표 및 토론내용 요약.

**올바른 지방화시대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  
▶고영철(언론홍보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2005년 6월 27일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평균투표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

로운 정치세력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며, 지방정치의 발전이나 변화를 저해한다.

올바른 지방화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조정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행정 및 정치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검열되지 않은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사안(예, 투표, 정책 및 사업계획, 행정서비스 등)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유식한 시민 혹은 유권자들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지방행정 및 정치는 언론을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언론은 첫째, 권력과 민중의 중재자 역할을 다하며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형성과정 단계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 셋째, ‘검열되지 않은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사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춘 시민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언론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특정의 사안이나

논쟁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토의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련 기사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잘사는 이유 중 하나가 유익한 정보의 공유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언론은 첫째, 지방행정 및 정치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하는 일을 견제·비판·감시해야 한다. 비판의 주제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며 감시의 대상은 비리, 부정부, 탈법 행위 등이다. 또한 사실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칠 영향을 보도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치면을 신선헌 지방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언론에선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치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론의 광장’은 없다.

현실적으로 지역신문들이 재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에서 각종 행사 비용을 지원받는 언론은 지역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형성이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자유로운 언론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들은 특수 이익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재정적 자족을 높이고 기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지역여론을 왜곡시키고 언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제

주지역언론들을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자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방송과 지역발전**  
▶구교태(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성공적인 자치 실현은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이끄는 것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언론은 미디어 이용에 대한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 현 도정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소속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이 낮다. 언론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기존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편집 틀을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수에 비해 많은 지역매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 라디오·신문 등의 매체 이용율이 높다. 또한 방송보다 언론사를 통해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다. 라디오와 신문은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진지한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이런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미디어는 게시판 답변을 활용하고 시청자위원 구성의 전문화를 하는 등 ‘시정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시민들의 반응이 없는 남독식의 토론방송이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

시정자의 미디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을 유도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KBS의 ‘보물섬’은 각화의 제목이 비어있다. 이런 경우 소주제를

권하고 싶은 책

## 국제적 법치주의의 확립 모색

국제법 특강 :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  
김부찬 | 보고서 | 3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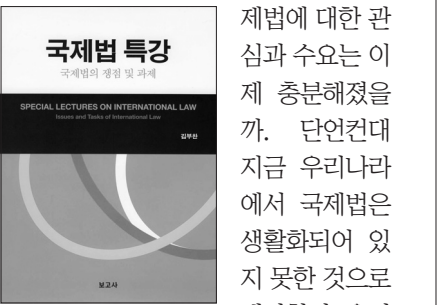
오래 함께 근무하며 지켜보아온 존경하는 선배 교수의 책을 평가해 되었다. 도덕적 반칙이 아닐까. 그러나 이 책은 충분히 동료 교수의 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강단에 선 지 3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그 간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여 자신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세상에 밝히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삶과 텍스트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저작자의 삶도, 텍스트의 의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함께 경험을 공유해 온 동료교수가 비평에 유리한 점도 있다.

책 제목이 매우 딱딱하고 평범하다. ‘국제법 특강’. 지금과 같은 시대에 왜 이런 책 제목을? 이런 딱딱한 책 제목을 붙인 이유가 나뭇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학문세계에는 학문의 형식적 엄격성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고하게 남아 있다. 시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저널리스트한 접근은 학문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강하다. ‘국제법 특강’이라는 책 제목의 선택에는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부제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떤 쟁점과 어떤 과제인가? 저자는 이미 2011년 그 간에 발표한 영문 논문들을 편집하여 ‘Globa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말 논문들을 편집한 것이다. 당연히 이 책은 우리나라 독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쟁점과 과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법률가들이 정말로 국제법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낙관적으로 답할 수가 없다.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우선은 법 인식의 문제이고 다음은 국제법 인식의 문제이다. 거칠게 얘기해서 법 또는 법이념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더구나 국제법이 현실로 인식되기는 힘든 법이다.

저자 스스로 1983년 9월 국제법 강의를 시작할 당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국



김부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이제 충분해졌을까. 단언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은 생활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를 외교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국제화되지 못하는 한, 국제법을 현실로 인식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제10장),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고찰(제15장), 수용국과 국제기업간의 투자분쟁 문제(제16장), 편의지적과 국제선박등록국제도(제17장),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제18장) 등등 구체적인 시사적인 주제들도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 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실무적, 현장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이다. 국제법이 아직 생활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불가피한 접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의미는 국제법의 쟁점이라기보다는 국제법의 과제라는 쪽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은 결국 ‘국제적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과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스로도 원래는 ‘국제적 법치주의와 국제법’이라는 제목을 택하려 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제화가 비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도 이제 만만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법치주의 인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하지 않고 국가 외교의 주제로 설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주를 그러한 외교의 주제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젊음을 국제법 연구에 바친 성실한 학자가 말하는 국제적법치주의 확립의 호소는 충분히 귀 기울여볼만한 가치가 있다.

고효성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3월 26일 ‘법·제도개선연구회 제17차 정책토론회’에서 지방행정 및 정치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표시하는 등 시청자들이 방송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낮은 문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의적인 사고를 떨쳐내고 언론의 지역친화적인 부분도 많이 추려내야 한다. 지역적 편중보다는 중립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제주 지방행정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미디어 관련 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라는 ‘자극제’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역발전의 도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정토론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언론의 도정 예측에 대해 “언론의 예언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돼야 도정

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중(제주일보) 편집국장은 지역신문의 현실에 대해 “제주지역은 광고시장이 적은데도 지역신문이 난립하고 있다”며 “지역신문 판매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송원일(MBC) 보도국장은 “공적 자원의 지원과 지역 언론인의 건강간 모습, 커뮤니케이션 내부의 다양한 편성 도전이 조화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낙진(언론홍보학과)교수는 “신문과 방송은 공히 저널리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로 이해된다”고 전체 한 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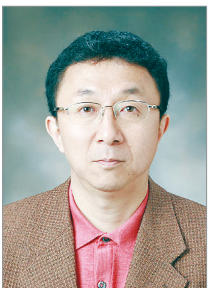
강창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방 언론들이 도지사 후보의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등 도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전달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정리·박소연 기자



#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계승 위한 사회 공감대 절실

기고 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



박 찬 식  
제주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4·19혁명 직후 시작된 4·3 진상규명운동은 5·16정변으로 좌절되고, 1980년대 중반까지 지나긴 암흑의 세월 속에 파묻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일기 시작한 민주화운동의 분위기 속에 다시금 진상규명운동이 대학생·재야단체·학술·언론·문화계·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유족회가 태동하여 위령제를 거행하게 되었으며, 4·3 공존위를 축으로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이 전개됐다.

◇4·3 진상규명운동의 과정

1998년 4·3 5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특별법 제정운동의 결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고, 결국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2005년 제주평화외의 섬으로 지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제주4·3사건은 실로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의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2003년 10월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표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포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급격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위령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4·3 해결운동에 주력하여 왔다. 하지만 4·3에 대한 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론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암울한 시대를 겪어왔다. 그러기에 4·3 진실 찾기 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인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국가추념일 지정과 그 의미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시키기로 발표했다. 정식 명칭은 ‘4·3희생자추념일’이다. 이로써 지난 시기 냉전과 분단,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소요사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국가가 추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000년 공포된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서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커다란 4·3 해결의 역사적 과업이 실현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기조로 한 국정과제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4·3사건을 둘러싸고 빛어진 이념의 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제주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갈등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단서가 4·3추념일을 통해서 확보된 것이다. 앞으로 희생자를 추념하는 4·3위령제는 국가기념일의 위격(位格)에 맞추어 국민적 행사로 처리되게 될 것이다.

## 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근거 마련

## 국가추념일 지정은 이념논쟁 해소할 수 있는 계기

## 추가진상조사 통해 미완의 문제 해결해야

나아가 4·3위령제는 대한민국의 추념 행사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평화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하는 보편적 행사로 정착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가기념일 지정에 수반하여 많이 산적한 미해결 과제가 풀려나갈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혜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80세 이상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4·3평화재단이 60세 이상의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병원진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3희생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기 위로해야 할 희생자’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또한 4·3평화재단이 국가가 4·3희생자를



1989년 4월 3일 치러진 41주기 4·3 추모제 당시 사진.

추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4·3평화재단은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민·관협력형 법정기구이다. 4·3특별법에 의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4·3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총본산이다. 중앙정부는 4·3평화재단을 4·3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사회적 해결로 확장시키고 진정한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평화기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史家)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희생자추념일’이 되려면 대한민국 정통성에 맞지 않는 자들은 ‘희생자’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도 있다. 물론 2001년 헌법재판소가 4·3관련 위헌소송 사건을 각하 처리하면서 ‘4·3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를 밝혀 놓았고, 이를 수용한 4·3중앙위원회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이미 희생자 확정을 일단락 시킨 바 있다. 이 시점에서 혹여 ‘반란세력’, ‘주모세력’ 가려내기가 또 다른 희생자·유족에 대한 이념적 덧칠로 변질되면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공동체가 다시금 가해와 피해, 양민(良民)과 불량민(不良民)으로 균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4·3유족회와 제주재향영호회가 화합과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선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4·3의 역사적 성격 규명보다 더욱 앞서 4·3사건의 와중에서 죽어간 모든 군인·경찰, 민간인들의 희생을 가해·피해의 체험과 좌·우 이념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시대적 아픔과 희생으로 관용(寬容)하려는 국가·사회적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재단의 역할은 막대해졌고 책임감 또한 훨씬 무거워졌다. 그러나 많은 갈등과 난제가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4·3문제 해결 과정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커다란 감동기를 이루어 화합의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길이 과거보다 더욱 험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국선열과 4·3희생자 등 선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처한 처진 현실도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라초대석 <4> 제주 최연소 해녀 ‘김재연’ 씨

## 바다에서 삶의 진리 깨달은 해녀

“바당 지기젠 햄신디 무사 힘들덴 고 람수광? 그거 잘못된거 마썸.”

바람을 머금은 듯 세찬 목소리,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다 같은 얼굴을 한 김재연(37)씨.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단어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이분은 정말 ‘강하다’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지키는 당당한 여인, 최연소 해녀 김재연씨를 만났다.

최근 해녀는 일반 해녀 ‘아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논란 등으로 다시금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해녀를 ‘직업’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인식은 아직도 남아있다. 김씨도 어릴적부터 해녀로 자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광사업의 파도에 몰든 고향을 보고 충격에 빠져 해녀의 길을 택하게 됐다.

“마라도에서 태어나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저도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다시 찾은 고향은 저에게 ‘해녀’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씨가 해녀 일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직장 생활과 달리 불안정한 수입, 주위의 인식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냉혹한 바다는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에도 썰물 밀물이 존재하듯, 자신의 인생 또한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고모가 저에게 해녀 일을 권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일에 지쳐있을 때였죠. 나 스스로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바다냐고 통명스럽게 거절했는데,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식히려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의 숨결, 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해녀는 단순히 물에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이라고만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파고들면 그 깊은 원리가 존재하듯, 해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다는 아무때나 들어가도 된다는 생

각들을 하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바다에도 ‘물때’가 있어요.

인간은 바다의 비밀을 2%도 채 못 알아냈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바다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다의 매력을 파헤쳐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해녀’이다.

“해녀 일을 백하고 나서 ‘해녀가 되려면 정말 영리해야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깊은 바다의 지형이 어떤지, 해산물은 주로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스스로 깨우쳐야 하죠. 쉽게 말하면 바다의 ‘네비게이션’이라고나 할까요.”

바다에게서 ‘삶의 진리’를 익힌 김씨에게도 고민거리는 있다. 바로 해녀의 명맥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 빠져 해녀의 길을 택하게 됐다. “마라도에서 태어나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저도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다시 찾은 고향은 저에게 ‘해녀’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을 안겨줬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씨가 해녀 일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직장 생활과 달리 불안정한 수입, 주위의 인식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냉혹한 바다는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에도 썰물 밀물이 존재하듯, 자신의 인생 또한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고모가 저에게 해녀 일을 권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일에 지쳐있을 때였죠. 나 스스로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바다냐고 통명스럽게 거절했는데,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식히려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의 숨결, 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해녀는 단순히 물에서 해산물을 캐는 사람들이라고만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파고들면 그 깊은 원리가 존재하듯, 해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다는 아무때나 들어가도 된다는 생



제주바다를 지키는 해녀 김재연씨(왼쪽), LA타임스 1면을 장식한 김재연씨의 기사(오른쪽)

### 로컬뉴스

## 올해 66주년 맞은 4·3 국가추념일로 지정

## 제주의 오랜 숙원 마침내 이뤄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4·3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안전행정부의 주관하에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1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한 후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이러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마침내 마무리됐다.

4·3 추념일 지정 과정은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추념일 지정이 포함. 2013년 8월 6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부대건의를 포함한 4·3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이어 2014년 1월 10일 제주자치도지사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조속한 추념일 지정건의에 대해 그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인하면서, 같은달 17일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시작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면서 2000년 6월부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최초 신고가 이뤄져 희생자 1만4032명, 유족 3만1253명이 심사·의결됐다. 지난해 5차 추가 신고된 4·3희생자 326명, 유족

2만8426명도 조만간 심사가 완료된다.

이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 유족회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합심으로 제주 4·3의 마지막 과제를 해결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66년간 이어져온 4·3의 한을 내려놓고 제주의 미래를 향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은 국가행사로 격상된 만큼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4·3도민연대에서는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3역사의 현장 사진전 등 전시회, 도민과 함께하는 4·3역사순례, 희망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 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제주도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한편 4·3평화공원은 위령제단을 비롯한 평화기념관이 건립되어 매년 20만여명이 방문하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4·3 유족회와 도민에 대한 사과가 이어지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다스리나 풀여지기 시작했다.

## 제주대 어류질병센터

## 해양부에 1억 지원받아

제주대학교의 전국 최초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가 연구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백신분야 연구추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책임교수 이재희 수산생명의학전공)는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유치를 위하여 2013년도 초부터 공동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들은 사업기간 7개년 총사업비 77억원의 R&D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을 위한 대응자금 지방비 1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어류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도로 3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내용은 △백테리아성, 기생충성, 바이러스성 예방 백신 개발 및 산업화 △어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모집

## 유망창업자 발굴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청의 ‘2014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제주지역 유망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희망 대상자를 4월 8일까지 모집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따른 시제품제작비·기술정보 활동비·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제주대)이 보유한 창업지원 노하우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2013년1월1일 이후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이며, 사업참여 희망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자 및 프로그래밍 운영, 일반인 실전창업 강좌 개설 등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후에도 창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제주지역 창업거점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공고내용과 계획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산업경제정보망-기업지원-지원시책-창업지원)를 참고하면 된다.

## ‘중국어체험 학습관’

## 제주도민에게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어체험 학습관’을 도민들에게 제공한다. 학습관은 중국 관광객이 500만을 돌파하면서 제주도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설치됐다. 이는 제주 관광 성장에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센터장, 사무원, 강사 등 총 8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자율학습자에게도 무료로 개방한다.

주요 시설로는 특정 상황에 맞는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다목적 트레이닝실, 중국현지 영상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영상트레이닝실, 단어·문장·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의사소통 트레이닝실, 1:1 코칭실이 구비됐다. 그 외에도 원어민 강사 등 전문강사 6명을 배치하여 입문단계, 기초단계, 대화단계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다음달 이용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jjctc.or.kr), 전화, 팩스, 메일(jjctc@daum.net)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학습관이 중국문화권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아시아·정세 변화와…’

##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원장 문태영)이 지난 3월 28일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제1세션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성준(윤리교육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는 신병식 서울대 교수가 ‘동북아 소지역 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제를 다뤘고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을 논했다. 이어 김재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강근형 제주대 평화연구소장, 김해웅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고바야시 소메이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가졌다.

한편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 연구와 교류·네트워킹의 거점 마련 차원에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해 개원했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정리=강수빈 기자



교수시론



이명곤  
철학과 교수

“  
인간은 본성을 넘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최근에 영화 ‘노아’를 보았다. ‘노아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서의 이야기이다. 영화를 본 뒤 느낀 것은 태초에나 현대에나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태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구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이편에서도 일어나고, 거대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한 미세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화의 내용이 성서의 내용과 다른 점은 ‘노아’ 역시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설정이며, 따라서 신의 뜻은 ‘지구라는 낙원을 살리기 위해’ 노아의 가족을 마지막 막으로 인류가 멸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끝나는 이 역사적 드라마를 목격할 수행하고자 한다. 자신의 자녀들은 ‘성실하고 선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노아는 ‘자신도 의인은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부조리 철학자’의 사상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자신의 손녀를 죽이지 못하여 신의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성서적 의인의 모습을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 때문이라면 ‘나 자신’과

‘노아’ 이야기와 현대사회의 모습

‘나 자신의 가족’마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에 대한 극복’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기존의 헐리웃의 영화와는 사뭇 달랐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반전도 없지 않았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이 대전제가 신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의 ‘선택’ 즉 노아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임을 노아가 깨닫게 되고 ‘이번에는 인간들이 좋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데서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영화를 집중해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구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낙원이란 모든 생명체가 반영하는 바로 이 지구라는 점’,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켜야할 법칙이 있다는 것’,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의로운 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근자에 들어 세간에 뉴스거리가 될 만한 큰 소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의 ‘도둑맞은 금메달 사건’이나,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행보’나, 러시아의 ‘크

림반도 점령사건’이나, 북한의 노골적인 ‘핵개발 선언과 미사일 발사사건’ 등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善’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인간이기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은 본성을 넘어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이며, 나아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은 출발부터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어떠한 사회인가, 제주도는 어떠한 사회인가 하는 것에도 정답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사는 사회란 항상 진행형 중의 사회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낙원이란 태초에 만들어 진 곳이라기보다는 서로 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며,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공동의 善을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일 것이다.

무명천 할머니, 이젠 웃으세요

동문칼럼



송지은  
행정학과02학번  
프리랜서

4월이 오면 무심코 지나던 발담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시 한편이 있다. ‘무자녀 그날, 살려고 후다닥 내달린 발담 안에서 /누가 날렸는지 모를 /날카로운 한 발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턱...’ (허영선 시인의 ‘무명천 할머니中’)

곧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허영선 시인의 ‘무명천 할머니’ 시를 잊을 수 없는 건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 27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에서 ‘4·3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다. 나는 학생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취재를 위해 전시실을 방문했다. <제주대신문 712호, 2004.3.31 ‘몸에 새긴 기억, 지워지지 않는 흔적’>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무명천 할머니’의 영상이 무겁게 돌아가고 그 옆에 길게 내려진 검은 천 위로 시 한편이 새겨져 있었다. 이 시가 바로 ‘무명천 할머니’다.

이 가련한 할머니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게 한 4·3을 알아야만 했다. 내가 4·3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여기에 있음이다. 그리고 그해 ‘무명천 할머니’는 두발로 딛었던 땅, 조그마한 터에 묻혔다. 서글고 서글웠으며 가련하고 가련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떤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허영선 시인의 시구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제주대신문 721호, 2004.9.15. ‘돌하루방: 무명천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었다. 그렇게 4·3후유장애자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리고 고성만, 김명주 제주대신문사 선배님들과 함께 4·3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이어갔다. 4·3후유장애자협회의 창립을 도우며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제주 4·3후유장애자 실태조사 보고서 I, II, III」를 발간하게 됐고, 2007년에는 4·3후유장애자 불인정자 행정소송 및 재심의 신청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4·3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 한편이 준 가슴의 파동이 꽤 오래 울리고 있는 것도 같다. 2000년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공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66년만이다. 4·3해결의 어두운 장막이 거치는 듯 하다.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났는지도 모른다. 검은 장막에 눈물을 흘리듯 슬프게 4·3후유장애인의 삶을 이야기한 ‘무명천 할머니’ 시.

어두웠던 4·3의 역사를 66년 만에 국가가 인정하고, 4·3해결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긴 세월 고통받아온 4·3후유장애자들의 문제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4·3후유장애자의 선정과정에서 붙여져 왔던 재심의, 불인정 등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가 빛은 비극을 고스란히 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제도권 안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한을 보듬을 장치가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다시 4월이다. 66년 만에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2014년이다. 오랜 세월 몸에 새긴 상처를 쉽게 말하지 못했던 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66년간 묻어두었던 아픔을 함께 해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미투상품’을 거부한다

독자기고



정민선  
컴퓨터공학과1

얼마 전 나에게 필요한 가방을 구매하고자 여러 곳의 가게를 돌아다녔다.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지 못한 채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최근 아름다운 연예인이 TV 드라마에서 사용해 인기를 끈 상품을 추천해 줬다. 광고값이 제품의 가격에 거품이라도 끼었었는지 가격은 무시무시했다. 풀이 죽은채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보고자 했다.

사이트에 상품명만을 검색하자 나오는 수많은 상품들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이미테이션’ 상품이 너무나 당당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다. 이렇게 한국사회는 인기있는 상품들을 베껴 만드는 ‘미투 상품’에 범들고 있다.

나는 미투상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연구로 탄생한다. 하지만 미투상품은 말을 곁게 포장해서 ‘모방’이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발업체들의 카페에 지친 선발업체들이 아이디어 출품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는 정체의 길을 걸게 될 것이다. 과거 상품의 모토가 ‘소품속 대량생산’이었다면 현재는 ‘다품속 소량생산’의 시대다. 같은 공정에서 무한정 찍어내는 비슷한 상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시대에 아직도 미투상품에만 매달려 아이디어를 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1위가 될 수 없다. 과거에 한 평론가는 이런말을 했다. “비틀즈의 음색을 완벽하게 따라한다면 한달 그는 모방가수일 뿐이다. 하지만 비틀즈의 음색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면 그는 이미 훌륭한 가수다.”

‘유명브랜드 스타일’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전략은 엄연한 범죄다. 한 상품의 곡선 디자인 하나라도 엄연히 디자인권에 포함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비자들이 미투 상품에 열광할수록 시장은 점점 도태될 것이다. 몇 푼 아끼자고 창의력을 죽일것인가. 소비자들의 현행한 소비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아라캠퍼스 일부 입주업체 최저임금 안 줘

독자기고



전호광  
수의학과4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주. 꽃망울이 망울지는 봄의 대학은 그야말로 화사하다. 어느 때 보다 학내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 구내매점부터 학교인근 커피숍까지 편의시설에는 많은 학생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긴다. 그리고 그 속에 이들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생 (이하 ‘알바생’)이 있다.

간편한 조끼에서부터 모자에 단정한 유니폼을 착용하기까지 자신의 근무지에 맞는 복장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학비, 생활비를 벌기위해, 때로는 하고 싶은 뭔가를 위해 그들은 청춘이라는 시간의 한 조각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알바생들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약속인 ‘최저임금’을 준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단, 모든 아르바이트 장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대학 내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2%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의 정의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즉, 지키든 말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2주전 학내의 편의시설을 확인한 결과, 2곳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저임금에 준수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지역에서는 4100원 전후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3년 (4860원), 2012년 (458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알바생들에게 ‘임금과 권리에 대해서 요구해라’고만 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학내 편의점 입찰시 최저임금의 준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현재 입점한 지점에 대해서 학교 행정처와 학생회 등에서 강력하게 임금준수, 휴식 시간보장, 주휴수당 등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교훈에도 ‘정의’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편의점 업주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업체와의 계약관계나 교내라는 특수성에 의한 판매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고충이 있다. 하지만 일부 통계에 따르면 교내 입점 편의점의 매출이 외부 편의점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시험기간이 되면 많게는 1200%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성신여대 등)에서는 교내 입점된 편의점에 상시 1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한다. 학교의 3주제를 외치는 대학이라면, 학생은 스스로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학교당국에서도 학생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꾸려나가고 구성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김창인 실천철학 특강 박태수 명예교수 ‘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예교수) 교수의 특강이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 박물관 2층 문화교류관 시청각실에서 ‘김창인 실천철학 특강-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강연 요지.



제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먹고, 자고, 읽는 문제를 부모에 의존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이 확대되고 신체는 어른을 달아가면서 서서히 독립을 준비해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꼭 따로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 용돈도 마련하는 것부터 해 나간다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한 존재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생동안 삶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20대에 이뤄야 한다.

라즈나쉬는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목적이 있고 끊임없는 성취를 하는 ‘욕망이 동기가 되는 행위’고 다른 하나는 목적이 없고 사랑만 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또 욕망을 이루려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은 성취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욕망은 끝없이 계속 생긴다. 승진을 꿈꾸거나 나만의 사업을 구상한다. 그러나 내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 노력한다면 평생을 애만 쓰다 불만족하고 죽게 된다. 하고픈 것을 못하고 죽는 것이다.

사랑이 욕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오로지 줄 뿐이다. 사랑은 아무리 줘도 마치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돈은 마냥 쓰다보면 하루 이틀이면 소진된다. 물질은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행동이 좋고 욕망이 동기가 되는 행동이 나쁜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욕망이 동기가 되는 행동은 정말 자기가 얻어야 한다. 열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 자신의 삶을 사랑을 위해 온전히 투입한다면 항상 하기전 땀가 부족한 모자라는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그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선한 사람이 있을만한 곳을 찾다가 목장에서 양치는 소년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양해를 구해 그림을 그린 그 화가는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그 후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그리고 싶어 뿔곡목, 도박장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교도소에서 가장 사악한 느낌의 죄수를 만났다. 양해를 구하고 얼굴을 그리는 도중 그 죄수가 문득 화가가 그린 양치기 소년 그림을 보게 됐다. 그러자 죄수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림 속의 20년 전의 목동이 바로 죄수였던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음과 양이 함께 있다. 밝은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살아간다. 마음 안에 음혼이 있다면 욕을 하고 때리고 흠치는 등 온갖 비행을 한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채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야 여러분은 삶을 조절하면서 살 수가 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을 하고 인식이 되고 있다. 나를 관찰하는 ‘나’가 있어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알 수가 있다.

예를들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남자친구와 싸웠던 기억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이다. 실천을 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2500년 전 도박을 가진 청년이 있었다. 스무 살이 넘도록 흠뻑다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알아차렸는데도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큰일났다는 생각에 성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했다. 하지만 성자는 그에게 ‘흠뻑쳐라. 그러나 알고 흠뻑쳐라’라고만 말했다. 어느날 그는 물건 쪽으로 손이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손을 멈췄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자의 말을 이해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랄 수 있다. 내 손을 보니까 나보다 멈추고 아예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괴로운 경우 마음을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원인을 제거해 상황에서 멀어져야 한다. 괴롭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조금만 알면 내 마음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정라+강경태 기자



